

# 여수산단, 10년간 3250억 투입 업종 다각화

### 혁신산단 지정... 성장유망업종 재편 청년고용 창출

### 석유화학 이노베이션 파크 조성 등 20개 사업 추진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산단 경쟁력 강화와 안전, 정주여건 개선 등에 국비와 지방비 3250억원이 투입된다. 혁신산업단지 정책은 노후 산단을 주력 성장유망 업종 위주로 재편해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지난 4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혁신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7개 혁신산단 가운데 2개가 전남에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남연 전반기 수립 후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활로를 찾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 등과 함께 혁신산단 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여수 국가산단은 혁신을 위해 전통 제조업 중심의 낙후된 산단 이미지를 벗고 업종 다각화, 고부가가치화, 안전인프라·관리기술 구축,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등 향후 10년간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이노베이션 파크 조성, 플랜트 안전체계 구축 지원, 국제비즈니스 센터 조성, 플랜트 엔지니어링 지원기관 설립, 공용 와이파이망 증설, 스마트 플랜트 센터, 근로자 공동 기숙사 등이다.

여수 국가산단은 전남지역 전체 산업단

지 생산액 128조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혁신산단사업에 의해 향후 5년간 고용인원 2만명, 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국가산단에는 현재 276개 기업이 입주해 1만9500여 명을 고용했으며, 연간 생산액은 98조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남지역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 128조원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설이라고 비아냥댔다.

의혹이 터질 때마다 불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 등은 "소설이다"는 말로 부인하게 마련이다. 소설을 쓰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 이 말을 들으면 몹시 불쾌하다. 소설문학을 비하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작가에게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나 시대정신을 꿰뚫어 보는 예지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소설을 쓸 수가 없다.

소제 선택에서부터 구성, 주제, 표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과학정신과 상징, 밀도 높은 문체 등이 필수조건이다.

특히 작가는 구성에서 '인과의 법칙'을 금과옥조처럼 중요하게 여긴다. 인과의 법칙이란 '아니 댄 굴뚝에서 연기 날까'라는 속담처럼,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어가는 정윤희 문건 파동을 지

오래전에 떠났다는 정윤희는 대선 직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10년 동안 소통이 없었다는 정윤희는 최근에 이재만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유진룡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정윤희의 말 승마대회 때문에 문체부 체육국장과 해당 과장이 인사 조치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건을 만든 조응천 비서관이 해임되고 박관천 경정이 좌천되었다.

이쯤이면 본질의 실마리가 풀렸지 않은가. 정윤희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검찰 출석 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을 본 국민들은 아, 이들이 실세로구나 하고 눈치채지 않았을까.

사건은 세포본열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심상시에 7인회를, 문고리 3인방에 양천으로, 정윤희 문건에는 박지만 서향희 문건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사실 여부만을 밝혀내면 될 것을, 정윤희와 박지만의 권력암투로 확대시키는 이

## 정윤희 문건이 소설이라고?

켜보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3류 대중소설가도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소설은 결말의 예측이 불가능한데 3류 대중소설이냐 막장드라마는 그 끝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

막장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번 문건 파동의 결말은 아무래도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다.

청와대의 대처방법 또한 막장 드라마 연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었지 않은가. 청와대는 8개월 전에 이 문건을 탐지하고도 내버려두었다가,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야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부랴부랴 수사를 했다. 더욱이 "찌라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이 뻔하다. 결국, 청와대를 의심한 압축수사 결과 최경락 경위의 죽음까지 불러오지 않았는가.

본질은 문건 유출이 아니다. 청와대 3인방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문건 유출은 그 다음 문제다.

40%가 픽션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실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다. 김덕중 국제정장과 이정현 수석이 물러났고,

유가 무엇인가. 문건파동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이를 보는 국민들은 안타깝고 답답하다.

서민들 삶은 더욱 힘들고 처리해야 할 국정은 산적해 있는데 국정은 마비되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 법세라는 싸움의 끝은 어디인가. 박지만이 출석을 했으나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않았다. 어느 쪽이 이기든 피해자는 국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다. 누가 이기든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 뻔하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두려워 게 없다."면서 기다리고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기에 사태수습을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기준 실정과 청와대 3인방을 물러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결국 특검까지 가야하지 않겠는가.

결국, 수사는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찌라시로 종결될 것이고,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경락 경위가 목숨 걸고 알리려고 한 것은 본질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한 유서 내용에 모든 진실이 숨어있을지 모른다. 이제 한 경위가 입을 열 때이다.

<소설가>

## 영암 F1경주장 문화공간 육성

### 전남도, 서울서 마케팅

전남도가 영암 F1경주장 연간 280일 이상 활용을 목표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16일 서울 양재동의 다-K호텔에서 대회 주관사, 모터스포츠 팀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마케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메이저 대회인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등 국내 자동차 대회 주관사를 비롯해 팀 관계자와 동호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2015년 경주장의 주요 정책과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설명했다.

경주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 및 여가 문화시설을 마련해 모터스포츠와 산업 및 레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발표했다.

전남도는 내년에 다양한 국제행사와 모터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국가 간 우호교류를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암 경주장이 아시아 지역 모터스포츠 및 관광,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프로드, 카트, 드래그레이스, 드리프트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분야를 지원해 새로운 스포츠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박봉순 전남도 F1대회지원담당관은 "모터스포츠 이벤트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위해 경주장 주변에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자동차 튜닝사업이 활성화되면 영암 경주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모터스포츠 레저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드니 희생자 추모

16일(현지시간) 범인을 포함 3명의 사망자를 내고 종료된 호주 시드니 인질극 현안인 시내 마틴플레이스의 린트 초콜릿 카페 근처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꽃다발을 바치고 있다. /연합뉴스

## 빛고을노인복지재단+복지재단 통합 '광주복지재단'으로

### 광주시, 산하기관 통폐합·인력 재편 등 고강도 구조조정

광주시가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효율화에 돌입했다. 기능이 유사한 재단 통폐합, 인력 적정성 진단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6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사단법인 등 23곳에 대한 경영진단을 완료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경영효율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영진단 결과 기능이 중복된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재)복지재단을 통합, 복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명칭은 가장 '광주복지재단'으로 바뀌게 되며, 그동안 준비해 왔던 복

지재단의 신설은 없던 일이 됐다.

또한 (사)광주국제행사시민성공협회의는 2015년 광주U대회 완료 후 폐지되며, 교육기능이 중복된 (재)여성재단의 교양교육 기능은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한다.

디자인센터는 2개팀, 1사업단이 축소되고 도시공사와 김대중센터, 문화재단은 1개팀씩 줄어드는 등 모두 14개 기관에서 직제가 축소된다.

비상근이던 영여방송 시장직도 폐지했다. 직제 조정과 상위직제 축소, 인력 적정성 진단 등을 통해 총정원을 1707명에서 37명 줄였다.

광주시는 인력감축 등에 따라 인건비 21억6000여만원, 경상비 42억2000만원 등 63억원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조직규모가 큰 도시공사와 도시철도,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소관 감독부서에서 내년엔 추가로 경영진단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사공단의 팀장급 이상 성과계약제 운영제도 정착, 출연기관의 임원 임명시 기관별로 다른 채용방식 통일화, 기관장 성과시스템제 도입, 임직원 보수체계 연동 등 업무효율화 관련해 232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경품행사

##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겸용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축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개별시 명품 응모권 증정)

1등: 황금열쇠수금1방(1방)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등반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총액 당행시 상의 품목이외에 승전, 폐사공급권 연인방

**선물2**

(기념품(각1))

[기프트카드]

[핸드크림]

[차약세트]

**선물3**

(개별시 축석복권 증정(100%당첨))

[풍경지갑]

[골프스틱 일대용기세트]

[세리믹코팅 냄비]

\* 상품은 예의치않은 상품 수 있습니다.

**자력기준**

- 자산건 10만원 이상 할당과
- 당기매출 15000원 이상 가입과
- 매출 1,000만원 이상 성립과
- 성립과제, 자동사보형 가입과
- 전자공금 신규자
- 자율에 3년 이상 신규자
- 체크카드 신규자(최이상 이용과)
- \* 금융추진팀의 정성유지 및 이용 개제
- \* 참가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광고)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소방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b>소갈비살 기본가격</b>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6,000원) 볼팩 (6,000원)

##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을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625대만리는만리도아닙니다.

## 착한 소장수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라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용 맞춤브랜드로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